[D15-or] 물리학 전공 인력의 취업/수급 현황 - 김윤기 (광운대), 강세종 (고려대)

시간: 2017 년 10월 26일(목) 11:00~12:00

장소: 300C 호

지난 10 여년 동안 대학 구조조정은 그다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.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전체 학생수의 감소 (+확실한 전망), 물리학 및 관련 분야 전공자들의 취업 상황이 점점 열악해져가는 현실이 물리학과의 (학부 및 대학원) 학생수 감소, 학과 명칭 변화, 심지어는 학과 통폐합등으로 모습을 드러내 오고 있다. 이번 가을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물리학 전공 인력 (폭넓게는 자연계 전공자)의 취업 및 수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타계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시간을 갖고자 한다.

[프로그램]

11:00 - 11:05 인사말, 최은하 교수 (정책위 위원장)

11:05 - 11:35 발표, 심정민 박사 (KISTEP)

11:35 - 11:55 질의응답 및 토의

11:55 - 12:00 마무리

[초록]

11:05 - 11:35

과학기술인력 현황과 수급전망을 통해 본 과학기술인력 발전방안

심정민 (KISTEP)

파괴적 혁신에 의한 제4차 산업혁명, 저출산·고령화,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·고실업 등 환경적 변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, 이 중심에는 과학 기술인력이 존재하고 있다. 이에, 본 발표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사회·경제 환경 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과학기술인력의 그간의 노동시장 변화 동향 및 특성, 수급전망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.